“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은 당연”

지역민들 법 개정 재개 촉구

교수 논문 전국 1위 등 당위성 충분히 입증

최근 국회 통과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좌절된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에 대한 법 개정안 작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R&D 특구 조성, 전남의 서남권 과학 인프라 강화 등 지역의 현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설립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원 이래 착실하게 쌓아온 광주과기원의 연구 실적도 이같은 지역민의 염원에 따른 학사과정 설립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을 골자로 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번 17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유는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과기원법’에 대한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결정적으로 KAIST가 소재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설립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9 총선에서 새롭게 진용을 꾸리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9 총선을 통해 당선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과기원의 학사 과정 신설의 당위성은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광주과기원은 1995년 개원 이래 지난 2006년까지 12년간 교수 1인당 논문발표 수 전국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 12년동안 발표된 SCI급(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을 분석한 결과 광주과기원이 교수 1인당 41.82편을 발표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KAIST 40.67편, 포스텍(옛 포항공대) 40.17편, 서울대 19.62편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치러진 중1 진단평가에서 광주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였고, 매년 대입에서 광주 학생들이 우수한 진학 결과를 보이는 점도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지방 교육재정 10% 절감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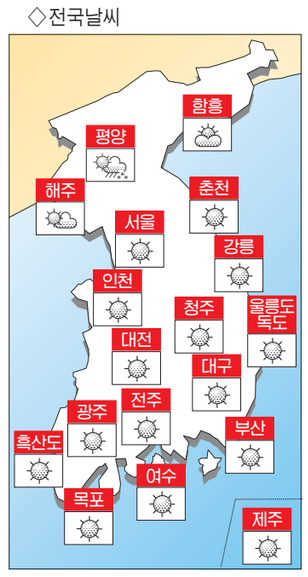
春의 계절

4월 1일 (음 2월 25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4~15℃
목 포	구름 조금	4~13℃
여 수	구름 조금	5~14℃
완 도	구름 조금	3~14℃
구 례	구름 조금	0~16℃
해 남	구름 조금	-1~15℃
장 흥	구름 조금	-1~15℃
고 흥	구름 조금	1~16℃
순 천	구름 조금	0~16℃
영 광	구름 조금	1~13℃
진 도	구름 조금	1~15℃
전 주	구름 조금	2~15℃
남 원	구름 조금	-1~16℃
흑산도	맑 음	5~11℃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10:23 22:30 썰물 03:08 16:38
여수 밀물 06:17 18:13 썰물 12:32 --:--

▲해뜸 06:19 ▲해짐 18:54 ▲달뜸 03:21 ▲달짐 13: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 씨						
최저/최고	6/14	5/18	4/21	5/20	7/21	6/21

“빵 제조업체가 먼저 금품 제안”

‘지렁이 단팥빵’ 관련 네티즌 글 진위 여부 조사

‘지렁이 단팥빵’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빵 제조업체인 S식품 측이 제보자들에게 먼저 금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진위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딸’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이 네티즌은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P사이트 게시판에 “사건 당일 S사 관계자가 빵을 먹었던 송모(38)씨와 아버지를 찾아와 문제가 확대됐으니 협조해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S사 관계자가 송씨와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과 1천만원씩 주겠다고 했으나 돈 욕심이 생겨 5천만원은 줘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또 “사건 발생 다음날 업체 관계자를 다시 만나 사례금 흥정 끝에 1천800만원에 합의하는 대신 각서를 쓰도록 했지만 각서 부분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네티즌의 대화명이 ‘딸’인데다 게시글에 사건 당일과 이후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 점으로 미뤄 제보 번복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된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의 딸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불법 선거운동 줄줄이 벌금형

법원이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관련자들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줄줄이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31일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를 세미나에 초청해 연설을 하도록 하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황모(48)씨와 또 다른 김모(43)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살포럼(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포럼)’이라는 조직의 임원을 맡고 있는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에게 연설기회를 주고, 참석자 160명에게 176만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정동영 예비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여·45)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원우 모임인 ‘청정 CEO 포럼’ 창립식에 정 예비후보를 초청해 강연하게 하고 참석자들을 위해 2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만우절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장난으로 119 전화 걸면 큰코 다쳐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만우절인 1일 장난이나 거짓으로 119 신고전화를 해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고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1항에 따라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첨단 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와 위치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의 강경 대처는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인해 실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강필상기자 kps@

새 정부 교육 예산 10% 절감

광주·전남 반발 확산

시민단체·교육계 철회 촉구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을 10% 절감해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정책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과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교육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지난달 3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안일하고 원칙 없는 무지한 교육정책에 등 돌린 지 오래”라며 “지방 교육 파탄 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방 교육예산 10% 절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서 5년 동안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 결국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교육재정에서 빼내 가겠다는 뜻 아니냐”며 “정부는 현재 4.4%인 GDP 대비 교육재정을 6%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도 논평을 통해 “교육재정도 열악한데 예산을 절감하면 그 피해는 모두 광주의 교육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이번 교과부의 예산 절감 정책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상기온에 반달곰 동면 ‘선잠’

예년보다 보름 빨리 깨

따뜻한 겨울과 적설량 부족으로 한달 가량 늦게 겨울잠을 잔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이번에는 따뜻한 기온 탓에 동면에서 일찍 일어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사무소는 “늦게 동면에 들었던 지리산 반달가슴곰들이 예년보다 평균 15일 가량 일찍 깨어났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남부사무소에 따르면 반달곰 16마리는 지난해 12월7일 동면을 시작한 후 13일이 돼서야 모두 겨울잠을 자는 등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늦게 동면에 들어갔었다.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반달곰들은 지난달 31일 현재 모두 일어나 활동 중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일찍 일어난 것으로 공단은 이 현상을 예년에 비해 적은 적설량과 높은 기온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지리산의 적설량은 2.7㎝였는데 반해 올해 같은 기간 적설량은 전혀 없었으며, 평균 기온도 지난해 3월 6.4도였지만 올해는 7.1도로 0.7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배근 박사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반달곰들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잔 셈”이라며 “겨울이 짧아져 먹이 활동이 길어진 만큼 짧은 동면이 생체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

“수지 김 사건 은폐·조작 장세동씨 9억 배상하라”

5공시절 남편에게 살해당했으나 간첩누명을 쓴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은폐·조작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에게 9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가가 김씨 유족에게 45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뒤 사건을 조작한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전직 안기부 간부들, 김씨 살해범이자 전 남편 윤태식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는 9억여원, 윤씨는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